

동두천 성병관리소
x 기지촌 빼벌 답사

기지촌,

지워지는 역사를
페미니즘적으로

균열내고

기억하며

개입하기

2026. 5. 23. (토)



일 시: 2026. 5. 23. (토) 10:00~19:00,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인근 집결
경 로: 서울 → 동두천 성병관리소 → 동두천 보산동 기지촌 →
상패동 공동묘지·캠프호비 기지촌 → 빼벌 마을 및 캠프 스탠리 →
'기지촌, 지워지는 역사를 페미니즘적으로 균열내고, 기억하며, 개입하기'
간담회 (사회: 역사문제연구소 / 발제: 두레방, 이룸) → 서울
대 상: 30인 (선착순 마감)
✓성매매 문제에 관심이 있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즘과 젠더 관점으로 미군 기지촌 역사와 공간을 살피고 싶은 이들
참 여 비: 3만원/ 국민은행 093401-04-246052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문 의: 02-953-6280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나나

공동주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두레방 | 역사문제연구소

답사 일정

시간	내용	세부내용	기타
10:00~11:30	답사 장소 이동 (신설동 → 성병관리소)		
11:30~12:00	동두천 성병관리소	· 역사문제연구소 지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 대 방문	화장실: 공대위 천막 옆
12:00~12:05	버스 이동		화장실: 주차장 바로 앞
12:05~12:45	보산동 일대	· 역사문제연구소 우영 · 답사 장소 ‘윤금이 사건’ 사건 터 > 캠프 케이시 정문 > 클럽 거리	도보 이동
12:45~12:55	도보 이동	보산동 2번 출구 앞 대로변 버 스 승차	
12:55~13:00	버스 이동 (상패동 공동묘지)	· 역사문제연구소 원아	버스에서 잠깐 하 차
13:00~13:15	버스 이동		· 하차 후 답사 장 소까지 15분 도보 이동
13:15~13:35	턱거리 마을 (캠프 호비 기지촌)	· 역사문제연구소 원아 · ‘SOONJA’ 의 묘 방문	
13:35~14:25	버스 이동 (동두천 → 빼빼마을)		
14:25~14:45	빼빼 마을 캠프 클럽	· 두레방 정강실	화장실: 빼빼 보관소
14:45~15:20	버스 이동 (빼빼마을 → 간담회 장소)		
15:20~16:50	‘기지촌, 지워지는 역사를 페미니즘적으로 균열내고, 기억하며 개입하기’ 간담회	· 사회. 역사문제연구소 정민 -발제1. 두레방 활동가: 은진 -발제2. 이룸 활동가: 기용	
17:00~18:50	서울 이동	이동 전 10분 휴식	의정부역 하차 회 망자 확인

목 차

□ 기획 의도	1
□ 공동주최 단위 소개	3
□ 장소 소개	7
동두천 성병관리소	8
동두천 보산동 기지촌	11
상패동 공동묘지	16
광암동 덕거리 마을	19
빼빼 마을	22
□ 기지촌, 지워지는 역사를 페미니즘적으로 균열내고, 기억하며 개입하기 간담회	23

기획 의도

서울 도심 지역에 자유와 해방의 공간으로 상징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입니다. 힘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표방되는 이태원에 기지촌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전쟁 이후 용산에 미군이 주둔했던 시절이 존재했습니다. 가부장적인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모에 의해 이태원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후커힐’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한편 이태원은 여느 기지촌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울 도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정책으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태원은 단순히 기지촌이라고만 볼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과 이태원 후커힐의 첫 만남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웃리치 물품으로 건네는 콘돔을 보며 ‘어머~ 콘돔이야’ 라고 너스레를 떨며 키득거리던 언니들, ‘너네 레즈비언이니? 도대체 누구니?’ 라고 질문을 건네는 언니들까지. 이태원 ‘언니’들과 이룸의 관계는 서로를 낯설어하고 궁금해하며 조심스레 시작되었고, 오묘하고도 재밌는 관계가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태원 후커힐은 조금씩 천천히, 한편으로 너무 빨리 변화했습니다. 후커힐 주 ‘소비자’ 미군이 떠났고, ‘금싸라기 땅’, ‘한남뉴타운’ 이라고 불리며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도시자본의 욕망과 ‘한탕’ 벌여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를 추동했기 때문입니다. 자본가와 소비자, 다양한 욕망의 중첩 속에서 후커힐은 ‘낙후’되고 ‘자본’을 축적할 수 없는 여성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통해 자본을 획득한 과거 후커힐 업주들은 ‘쇠락’해 가는 이 공간을 진즉 떠났고, 지금의 후커힐은 오래된 소규모 업소들과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이 든’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룸은 이미 오래 전 폐업한 업소, 간판 불이 꺼진 업소들 앞에서 ‘그 많던 언니들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후커힐 업소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사회의 거대하게 팽창된 성매매 산업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오래된 성매매 집결지, 기지촌은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 등이 도시 재개발과 자본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낙후’된 ‘노른자 땅’에는 브랜드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청량리 롯데캐슬이 들어서던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 홈리스들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명목하에 사라졌습니다. 롯데캐슬은 2015년 기준 1㎡당 498만원이었고 2026년 현재 1㎡당 2천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 많던 언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남성중심적인 국가와 정책, 제도, 남성연대, 자본은 여성의 젠더섹슈얼리티를 활용하여 이윤을 취하며 기회로 삼고, 더 큰 자본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가 아닌,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해 활동하는 우리는 소비와 자본이 성매매 집결지를 ‘쓸어버리는’ 현상에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입이 없다면 성매매 산업은 또 다른 성매매 업소의 발명, 또 다른 여성의 성매매 산업 유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이 고민은 이룸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자만의 고독한 고민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와 소비사회 속에서 반성매매 활동가 동료들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각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각자 현장에서의 고민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요.

이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며 나누고, 균열지점을 만들고자 두레방, 역사문제연구소,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성매매 산업 해체를 지향함과 동시에 군사 정책, 관광 정책, 도시 재개발에 의해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져 버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성매매 집결지 ‘소거’ 문법에 페미니즘 언어로 문제의식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질문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질문들을 부여잡고 모색하며 고단함 속에서 단 한 발이라도 길을 어렵게 찾는 것이 반성매매를 지향하는 페미니스트 활동일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고민을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탈성매매 세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공동주최 단위 소개

두레방

두레방은 1986년에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와 문혜림 선생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두레방의 ‘두레’는 서로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로,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간입니다.

두레방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 두레방은 기지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문제, 군사주의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두레방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합니다.
- ▷ 두레방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되었던 고령의 기지촌 선주 여성들과 1990년대 중순 이후부터 유입된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밖의 성매매 피해 또는 경험이 있는 선주·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① 두레방사무국

두레방 성매매피해상담소,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지원시설,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홍보 활동 및 연대 활동, 기지촌 여성 인권 활동, 기지촌 역사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② 두레방상담소

2006년, 의정부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개소하였습니다. 기지촌 또는 그 밖의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선주·이주여성 의 인권을 위한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인권 침해 관련 지원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③ 두레방쉼터

2009년,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설’인 두레방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삶의 공간이자 투쟁의 공간’으로, 국내 이주여성들이 겪는 성매매 강요와 폭행,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법률, 의료, 심리치료 프로그램, 귀국 등을 지원합니다.

④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2021년, 평택역 인근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 또는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두레방이 평택시로 부터 수탁받아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개소하였습니다. 서로의 ‘품’을 지고 돕는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성착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담과 지원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합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착취와 젠더섹슈얼리티 권력관계로 인한 억압없이 모두가 자기 자신 그대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매매 현장의 경험을 끌어 올려 한국 성매매 산업을 뒷받침하는 정치-경제-문화에 균열을 내는 페미니스트 현장단체입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성매매 문제와 현상을 아래와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자원의 부정의한 배치로 인해 모든 것을 상품화해야 생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와 성차별, 성적 억압을 사회의 운영 원리로 삼고 있는 가부장제가 서로 강화하며 동시에 몸을 불리는 사회 속에서 성매매 산업은 전지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성매매 산업을 통한 자본 축적을 권장하는 국가, 여성 멸시와 폭력을 즐거움이라고 옹호하는 남성 문화, ‘음란’한 여성을 선별하고 처벌하는 성적 이중규범, 이들은 여성의 몸을 경유해 이윤을 창출하고 여성 빈곤을 비가시화하며 확대 재생산해 온 성매매 산업의 제도적 장치들입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성매매 산업 해체를 위해 산업의 작동방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알리며 제도, 문화, 인식을 바꿔나가는 사회 활동을 한다
- ☐ 성판매자가 성매매 과정에서 겪는 혐오, 차별, 폭력을 비롯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현장 활동을 한다
- ☐ 여성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위 가치를 기반으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을 운영하고 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량리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은 페미니스트 관점을 기반으로 상담지원활동을 합니다. 성판매 경험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성판매 경험 당사자가 차별, 편견, 낙인없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성판매 경험 당사자들이 폭력, 차별,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고 연결합니다.
- ☐ 성매매 산업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성판매 경험 당사자들에 대한 폭력, 차별, 인권침해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전환합니다.

역사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는 “우리 역사의 여러 문제들을 공동연구하고 그 성과를 일반에 보급함으로써 역사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1986년 2월 21일 설립된 민간 연구단체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역사학 및 역사에 관심을 가진 여러 분야의 연구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7년 창간한 대중학술지 『역사비평』은 역사연구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1996년부터는 한국근현대사 분야의 전문학술지 『역사문제연구』를 발행하여 새롭고 뜻있는 연구들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사단체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해외 연구단체와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역사연구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구활동

- ◇ 역사문제연구소는 여러 주제별로 공동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반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 기능합니다. 또 중요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별연구반이나 기획모임을 구성하여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역사문제연구소는 다양한 주제의 비판적 학술토론회를 열어 왔습니다. 또한 해마다 역사학계의 쟁점이 될 문제들로 연구소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 그 성과를 발표하며 한국사회에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정기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 역사종합계간지 『역사비평』(연 4회)과 연구원들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한 논문집 『역사문제연구』(연 3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 일본, 중국, 대만, 독일, 미국 등 해외 연구단체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및 출판, 답사를 포함하여 여러 학술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 왔습니다.

대중활동

- ◇ 역사문제연구소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와 역사연구의 만남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연구를 지향하며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은 연구소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역사와 관련한 주제와 쟁점을 가지고 소통함으로써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여러 방식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 ◇ 연구자와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만나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강좌를 열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현재적 의미를 살피는 답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역사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소 소개

동두천 성병관리소

동두천시 소요산 초입에는 낡은 2층짜리 건물이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방치되어 있다. 지금은 폐허처럼 보이지만, 1973년부터 1996년까지 기지촌의 성병관리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다. ‘낙감자 수용소’라고도 불렸던 이곳은 미군을 상대하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성병 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검진증이 없거나 성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을 강제로 수용하여 치료 명목으로 감금했던 공간이다.

〈소요산 성병관리소 건물〉



* 출처: 「[우리동네뉴스 1548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기억 공간으로 보존될까」, 『한겨레21』, 2025.1.22.

시설은 대지 2,371평, 각 층 10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1층에는 진료실·검진실·식당 등이, 2층에는 20명 정도 수용 가능한 7개의 입원실·화장실·세면장 등이 있었다. 입원실 창문에는 도주를 막기 위한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기지촌의 역사는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되며 남한 전역의 주요 도시에 미군 부대가 진주했다. 미군 부대가 있는 곳마다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특히 분단된 국가의 최전방에 해당하는 경기 북부의 도시에는 미군이 대거 자리를 잡았다. 과거 농업 중심이었던 동두천 지역 역시 미군 주둔 이후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2차 산업과 서비스업이 깊게 뿌리내렸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은 유엔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서울에接客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하고, 미군과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구 전염병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지촌 여성들은 1주 2회 정기적인 검진을 강요당했다. 이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공포하여 성매매를 불법화했으나, 예외적으로 미군기지 반경 2km를 ‘특정 지역’으로 규정하여 성매매를 허가했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의 방위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인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었다.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권은 미군 주둔 유지를 위해 ‘기지촌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기지촌정화’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기지촌 여성을 지역 경찰과 보건소에 등록시켜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설립된 곳이 기지촌의 성병관리소였다. 성병관리소 제도는 미군의 전염병 통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미합동체제의 산물이었다. 기지촌정화운동은 미 사령부와 한국 정부의 협력체인 ‘한미합동위원회’가 주도해서 나온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40여 곳이 성병관리소가 운영되었으며, 경기도에만 6곳이 세워졌다. 경찰·보건소·미군이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 이른바 ‘낙점자’들을 수용시설로 보냈다.

기지촌 정화운동에서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검사, 엄격한 접촉 확인 체계의 제정 및 강화로 구성되었다. 미군이 기억했다가 의료 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과다 투여에 따른 약물쇼크로 인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치료비는 모두 여성에게 전가되었다. 성병관리소는 여성들에게 공포의 공간이었다. ‘몽키 하우스’라고도 불렸던 이곳의 병실, 쇠창살, 약물 냄새는 단지 보건을 위한 곳이 아니라 ‘순결한 몸’을 강요한 국가의 폭력을 단적으로 드러낸 공간이었다.

1950년대부터 한국 내 각 지역 기지촌 여성으로 살았던 122명은 2014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매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불법적인 기지촌을 조성해 운영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애국교육’ 등을 통해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강제 격리시켜 폭력적으로 성병 치료 등을 했”던 것에 문제제기했다. 소송은 8년이 넘게 이어졌다. 결국 2022년 9월 대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는 구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의무 등 마땅히 준수돼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때 대법원은 국가의 성병관리소 운영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격리수용 치료나 의료 전문가의 진단이 없어 전염병 환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루어진 격리수용 치료 행위는 법령과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국가의 성병관리소 운영 행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해 장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했다.

1996년 운영이 중단된 후 소요산 성병관리소는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다. 건물의 토지 소유주(사학재단 신흥학원)와 건물 소유주(동두천시)가 달랐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을 이유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철거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¹⁾ 측은 옛 성병관리소 보존운동에 돌입했다. 2023년 4월에는 성병관리소 보존을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성병관리소

1)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인권과 평화, 지역의 환경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미군 기지가 밀접했던 경기북부의 역사에서 분단과 전쟁의 역사가 곧 군사주의와 개발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의 활동은 경기 북부 지역의 기록 조사와 아카이브 작업, 지역 시민들을 위한 평화인권 강좌와 문화행사부터, 지역 이주민 노동권을 위한 활동, 동두천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한 매달 캠프모빌 돌레길 걷기 등 평화를 위한 시민운동 전반이다.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었다. 이듬해 8월에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고,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낯선 이들에게 소요산 성병관리소는 폐허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공간이 지닌 의미는 단순히 낡은 건축물에 머물지 않는다. 이곳은 오랜 시간 기지춘 여성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를 증언하는 장소이다. 그렇기에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측에서는 성병관리소를 ‘평화와 인권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소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치유되지 않은 이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곧 다음 세대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VR 둘러보기

https://www.gwff.kr/template/251212_VR/index.html



동두천 보산동 기지촌

한국에서 기지촌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미군의 한국 주둔이 고정화되면서부터다. 특히 경기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은 기지촌이 형성된 지역으로, 동두천시 역시 지금까지 총 6개 기지를 운영해왔다. 현재(2026년)는 공여구역이 부분적으로 반환되어 보산동의 캠프 케이시와 광암동의 캠프 호비 두 곳만 운영 중이다. 그 중 캠프 케이시는 동두천시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였던 곳으로, 한때 미 제7보병사단의 본거지였다. 이후 닉슨 독트린에 따라 1971년 미 7사단이 철수하고, 파주 문산에 주둔하던 미 2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2사단 1여단 주요 전투부대 중 일부가 주둔하고 있다.

<캠프 케이시 정문>

1982년



*출처 : 동두천시 사진기록집

2024년



「경민대 효충사관과, 캠프 케이시 미군기지서 선진 軍 문화 체험 만끽!!」, 『뉴스통신』, 2024.6.14.

이렇게 형성된 미군 주둔 체계 아래, 동두천의 지역 경제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2차 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다. 그 중심에 있던 곳이 캠프 케이시 정문 앞 일대의 보산동으로, 대표적인 기지촌 지역으로 꼽힌다. 기지촌 전성기였던 1960~80년대에는 동두천시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80%가 보산동 기지촌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였다.²⁾ 1967년 한 해동안 보산동 26개 미군 전용 클럽이 벌어들인 외화가 약 40만 달러에 이르렀다. 당시 한국의 총 수출액이 4천만 달러 안팎이었다는 점에서 그 엄청났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³⁾

2) 소양,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투쟁의 순간들: 소요산 성병 관리소 앞 천막 농성장으로부터 온 이야기」, 『여/성이론』 51, 2025, 318쪽.

3) 『동두천을 찾고, 잇다』, 69쪽.

<보산동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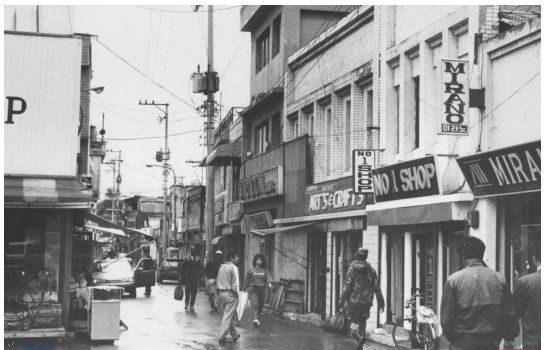
1984년



1984년



1991년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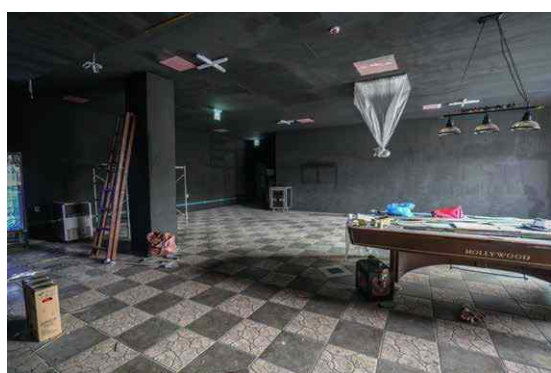
*출처 : 동두천시 사진기록집(상단); 오픈 아카이브(하단좌측); 「미군 ‘캠프 케이시’에 갇힌 동두천 [취재후/미반환 미군기지] ①」, 『KBS뉴스』, 2025.6.16.(하단우측)

이렇듯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여성이 생계를 위해 미군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클럽 거리로 불렸던 보산동은 달러와 군사 권력이 교차하는 공간이자 사실상 국가가 묵인한 비공식 치외법권 지대였다. 이곳의 여성들은 미군을 상대하는 성매매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지만, 국가와 사회는 그들을 ‘기지촌 여자’로 낙인찍고 통제했다. 이 구조는 냉전 체제와 미군 주둔의 지속 속에서 장기화되었다.

<보산동 클럽(노란색 건물)>



<리모델링중인 클럽 내부(2025년)>



*출처 : (재)경기도여성가족, 『기지촌여성 인권기록 아카이브 - 동두천편』, 2025, 75쪽.

1992년 10월 28일, 동두천시 보산동의 작은 셋방에서 윤금이 씨가 미2사단 소속 마클 케네스 리(Markle Kenneth Lee) 이병에게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범인을 검거한 것은 동료 기지촌 여성이었다. 김윤자(가명, 당시 30대 초반) 씨는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동두천 기지촌 여성과 아동들의 쉼터인 다비타의 집 전우섭 목사에게 알렸다. 이후 이 사실이 동두천민주시민회에 알려졌고, 동두천민주시민회는 두레방으로 연락하였다. 김윤자 씨는 오랜 기지촌 생활을 통해 기지촌 여성이 미군에게 죽어도 수사를 하거나 미군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이 사건이 그런 식으로 묻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 윤금리와 마클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고,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후 김윤자 씨는 행방불명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여러 주체의 끊임없는 활동과 투쟁의 과정이었다. 케네스 마클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1994년 5월 17일 한국 정부가 그의 신병을 미군 당국으로부터 인도받아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하여 사건이 일단락되기까지 투쟁은 18개월간 계속되었다.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마다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매회 수백에서 천명 가까이 되는 방청객을 조직했고, 서명운동을 벌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역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 미군 당국, 한국 정부 등에 항의 편지 보내기, 단식 농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사건을 여론화하고자 했다.

〈미군의 윤금이 살인 만행 규탄 시위하는 동두천 시민들과 대치하는 경찰(1992.11.1.)〉



*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생산자: 경향신문사)

당시 언론은 이렇게 대중적인 호응과 분노가 큰 이유를 너무 참혹한 사건이었다는 점과 한국 경찰의 비굴한 태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관할서에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도 받지 않은 채 마클을 미군범죄수사대로 인도했다. 한미행정협정에 따르면, 재판 종결 이전까지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미군 당국의 관할에 두게 되어있었다. 주한미군 피의자를 체포하면 한국 경찰이 신문조서 작성 등 기초 조사를 마친 후 미군에게 신병을 넘겨주게 되어있었으나, 한국 경찰은 이마저도 포기한 채 마클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당시 사건 발생에서 판결이 내려져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18개월 동안 핵심 쟁점은 ‘공정한 수사’였고, 이는 ‘한국의 민족적 자존심’과 미국의 패권주의가 갈등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절정에 달했고, 당시 미국의 쌀개방 압력과 맞물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반미시위가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윤금이 사건’⁴⁾은 점차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의 뇌리에 미군 범죄 문제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어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기지촌 여성의 인권 문제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군 범죄에 대한 민족 혹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 즉 ‘한국인에 대한 미군 범죄’ 문제로 집중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시 ‘윤금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기지촌’에만 방점이 찍히면서 기지촌 안에서 계속되었던 여성의 인권 유린 현실은 제대로 포착되지 못했다. 예컨대 기지촌 여성들이 ‘남성 손님’, 포주, 지역 깡패, 경찰, 클럽 주인 등 한국 남성으로부터 당하는 강간과 폭력은 제대로 문제화되었다고

4) '윤금이 사건'이라는 명칭은 피해자의 이름을 사건명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명명 방식은 사건의 책임 소재를 흐리고 가해자의 존재를 지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 성폭력 살인 사건' 등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랫동안 '윤금이 사건'으로 불려 온 역사적 맥락 또한 존재하며, 현재 시민운동과 연구 등에서도 여전히 이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존 명칭이 지닌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작은따옴표를 붙인 '윤금이 사건'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보기 어렵다.

당시에 사회 각계에서 이 사건을 문제화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예컨대 대학생들에게 이 사건은 반미 투쟁을 강화하는 계기였고, 종교계에서는 인권의 문제를, 시민 운동 세력에서는 반미·민족주권의 문제를, 여성계에서는 여성인권과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건을 민족주권의 문제로 조명하는 시선에서 윤금이는 한국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의 희생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지촌 여성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역설적으로 기지촌 여성은 살아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죽어서만 비로소 민족주권의 상실로 상징화되며, 비로소 민족의 성원이 될 수 있었다.⁵⁾

그런 점에서 여전히 ‘윤금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군 주둔 아래 형성된 기지촌의 구조와 그 속에서 오랫동안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던 여성들의 존재를 어떤 시선으로 복원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 사건은 반미 감정의 상징으로만 소비되기 힘든, 가부장제 국가의 젠더화된 폭력을 증언했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5) 정희진,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2000.

상패동 공동묘지

동두천시 상패동에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다. 누가 묻혀 있는지도, 언제 묻혔는지도 알 수 없는 무덤들이 이어져 있고, 봉분 사이사이로 이름 대신 숫자가 새겨진 검은 나무토막이 꽂혀 있다. 1930년대 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전부터 존재했던 자연발생 공동묘지로 추정된다고 한다.

2010년 기준으로 안장된 묘는 총 1,003기였고, 이 중 묘적부에 기록이 남아 있는 묘는 610기, 기록이 없는 무연고 묘는 393기였다. 전체의 약 40%가 무연고 묘로, 묘적부가 남은 610기 가운데서도 사망 연도를 알 수 없는 묘가 42%에 이르렀다. 전체 묘 중 약 67%가 신원이나 사망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묘였다. 기록이 남은 347기의 묘 중 약 80%가 1960~1970년대에 안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연도 추정이 불가능한 67%의 묘가 말해주는 것은, 인구 6만의 소도시에서 20년 동안 매달 평균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이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더라도 사망원인도 모른 채 죽어나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흥 도시 동두천의 형성기인 1960~1970년대가 이름 없는 자들이 흘러들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빠져나갔던 부유(浮游)와 이산(離散)의 시간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⁶⁾

사망한 기지촌 여성 다수가 상패동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김정자의 증언을 김현선이 엮어 기록한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한울아카데미, 2013)을 통해 이 공동묘지의 옛 이름이 ‘남산모루 공동묘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기지촌여성들의 유해는 주로 공동묘지 뒤편에 매장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기지촌여성들이 묻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1992년 10월 28일 사망한 윤금이의 경우 또한, 10월 30일 경찰에 의해 가족들의 입회 하에 화장된 후 동두천 상패동 공동묘지에 뿌려졌다고 한다.

조해일의 소설 「아메리카」(1971년 『세대』에 발표)는 당시 동두천 보산리를 배경으로 기지촌을 그린 중편소설인데, 여기에는 미군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장례식에 대한 묘사가 있다.

상여가 다리끼로 굽어들자 거기서부터 후미의 여자들이 뒤따르는 구경꾼들을 막았다. 장 씨가 내게 설명했다.

“여기서부터 자기네들끼리 갑니다. 장지에 도착하면 무덤도 자기네들끼리 파고 하관도 자기네들 손으로 마치고는 봉분도 자기네들 손으로 한답니다. 다 끝난 다음엔 술들을 지탕 퍼마시고 한바탕 뒹굴며 난장판이 벌어진다더군요. 나두 들었쥬. 이따 저녁에 보세요. 저 흰옷들이 원통 진흙 투성이가 돼서들 내려올 겁니다.” - 조해일, 「아메리카」 중

이 소설이 그린 장례식 대오의 모습은 1967년의 아래 사건 기사와 비슷하다. 보산동에서 미군에 의한 여성 살해가 발생하여, 500여 명의 ‘위안부’ 들이 미군기지 앞에서 데모를 벌이고 약식 사과를 받은 후에 신천을 건너 공동묘지로 향했다는 내용이다.

1967년 11월 7일 오후 미 제7사단 영내에서 소복을 입은 5백여명의 위안부들이

6) 김수진, 「동두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시사IN』 145, 2010. 6. 3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0>

지난 5일 미7사단 소속 흑인 ‘테일러’ 일병에게 목졸려 죽은 동료 김춘자(金春子, 21) 양의 상여를 메고 데모를 벌였다. 이날 김양 장례식에 참석했던 북보산리지구 자활부녀회 회원인 5백여 위안부들은 상여를 메고 공동묘지로 가던 도중 ‘테일러’ 일병의 소속부대인 미7사단 정문 앞에 이르자 일제히 부대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다 50여 미 헌병의 제지로 부대안 10m 지점에서 상여를 내려놓고 “사단장은 고인의 뉘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동안 연좌데모를 벌였다. 이들은 사단장을 대리한 민사참모 ‘바디스’ 중령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는 사과를 받고 공동묘지로 향했다. (『동아일보』



1967. 11. 8)

상패동 공동묘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역사문제연구소가 기획, 참여했던 2015년 ‘평화기행’ 후기를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기지촌 여성들이 많이 묻혀있다는 상패동 공동묘지에 갔다. 잡초가 무성해서 다른 분들이 낫을 들고 잡초를 베서 길을 터주셨다. 그 곳은 일제 시대부터 무연고 무덤이었고, 기지촌 ‘언니’ 들은 1960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집중적으로 묻혔다고 한다. 1970년대 말에는 1200개의 묘가 있었다. 지금은 잡초가 워낙 많아, 낫으로 누군가가 길을 터주셔서 겨우 공동묘지 안쪽까지 갈 수 있었다. 이름도, 묘비도 없이 봉분들이 있고, 가끔 번호판이 있다.” 7)

2026년 현재, 상패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대 초부터 공원 개발 촉구가 진행되며, 분묘연고자에 대한 알림, 무연분묘개장 공고를 거쳐 개장이 진행되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 후 유골을 10년간 봉안할 계획이며 이후 공원시설 및 녹지환경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8) 2025년 12월 상패동 공동묘지 분묘 1007기(유연분묘 227기, 무연분묘 780기)가 이전을 완료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수풀에 싸여 있던 무연고

7) 유다정·양수빈, 「보이지 않는 한국 전쟁의 피해 현장을 돌아보다: [2015 평화기행④] 철원 노동당사, 동두천 성병관리소, 상패동 공동묘지, 양주 효순이 미선이 추모공원」, 『오마이뉴스』, 2015. 8. 24.

8) 「동두천시,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매일신문』, 2023. 3. 19.

분묘들은 파묘 후 300km 넘게 떨어진 추모공원(경북 경주 영호공원)에 봉안됐다. 두개골이 또렷하게 남아 있거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거나, 소수의 뺏조각만 수습되기도 했다. 그중 기지촌 여성 분묘의 비중은 확인되지 않는다(손술 의원실이 동두천시에 확인한 결과, 공동 묘지 일대 무연고 기지촌 여성 묘지 관련 자료 ‘부존재’). 봉안된 유골함은 10년간 보존·관리된다(2034~2035년까지 봉안 후 소멸).⁹⁾



기지촌 여성들의 무연고 무덤, 동두천 상패동 공동묘지© 오마이뉴스 임성용 2024. 8. 29.



<동두천 상패동 무연고 묘지> 아가일여 님의 블로그 기록(2020년 촬영) <https://blog.naver.com/hee1133k/222181398321>

9) 복건우, 「열여섯에 끌려간 '빼벌'...'양OO'라 불린 그녀를 아십니까([국회에 온 '당신의 이야기'] 50년 전 미군 기지촌으로 인신매매... '미군 위안부' 이순자가 바라는 사과)», 『오마이뉴스』, 2026. 4. 6.

광암동 톱거리 마을



동두천 미군공여지 현황 및 활용계획

출처: 「동두천시, 미군 사격장 연내 반환에 “기지 반환의 물꼬” 기대감」, 『한국일보』
2019. 12. 11.



캠프 호비 위치도(출처: 경기도청 웹사이트 ‘반환공여구역’)



박순자의 묘 (출처: 『땅과 기억: 동두천 덕거리마을과 공동체 아카이브』, 경기문화재단, 2018. 73쪽)

동두천 광암동 덕거리마을은 캠프 호비 기지 앞에 위치한다. 덕거리마을박물관이 세운 안내판에 따르면, 조선시대 도승지가 태어났다 하여 ‘승지골’로 불리다가 일제시기에 기촌(基村)이라 불렸는데, 1945년부터 기(基)의 뜻인 터와 거리, 또는 골(마을)이 합쳐져 덕거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한가운데로 동두천(東豆川)이 흐른다. 1954년 여기에 캠프 호비가 자리잡았다. 캠프 호비는 캠프 케이시와 연결된 미군기지로, 평택 이전이 진행되었으나, 순환부대가 배치하고 있는 영내 기지는 아직 미반환 상태다.

캠프 호비가 자리잡자 기지촌이 생겨났다. 미군을 위한 클럽과 술집 등 유흥 및 서비스 업소들이 동네를 메웠다. 광암동은 1970년대까지 보산동과 함께 동두천에서 가장 번화한 기지촌이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두천 전체 인구 중 70% 가량이 캠프 케이시 앞 보산동과 캠프 호비 앞 광암리(덕거리마을), 그리고 생연동에 거주했다. 광암동에서 일어난 미군의 범죄나 소동에 대한 기사도 많다. 이후 캠프호비와 캠프케이시를 잇는 길이 기지 내부에 생겨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주한미군의 이라크파병으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많은 업소가 문을 닫았고, 이후에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클럽들이 대신 들어섰다. 미군기지가 이전, 축소된 후 마을은 쇠락한 모습으로, 클럽 간판과 건물들은 옛 흔적을 보여준다. 2019년 경기문화재단 사업 일환으로 옛 클럽 건물을 활용해 ‘덕거리마을박물관’이 개관했으나 현재는 폐관되었다.

캠프 호비 입구 옆에 나있는 길로 죽 들어가면 ‘박순자’의 묘가 있다. 1971년 사망한 SOON JA RAYNOLDS 라고 새겨진 작은 묘비가 있는 것이다.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0년 8월쯤 한국식 봉분에서 대리석으로 평장(平葬·평평하게 매장)됐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순자의 ‘그’가 찾아왔거나 지나던 미군이 미국식 무덤으로 바꿨다고 여기고 있다고 한

다. 묘 앞엔 ‘동두천과 미군 사이 평화의 상징인 이 무덤의 주인공을 알고 있거나 무덤을 관리하고 계신 분은 연락바란다’는 팻말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묘비의 내용은 “순자 레이놀즈(Soon Ja Reynolds). 내 사랑 평화롭게 쉬기를. 당신을 영원히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합쳐져 있다오”라고 한다.¹⁰⁾ 과거 묘비를 찍은 사진을 보면 맨 아래 한글로 적힌 두 줄(“박순자/가지말아주오”)이 있었기에 묘의 주인 이름이 박순자임을 알 수 있다.

“당시 돈으로 오천 원을 주면 매장을 해줬다고 해요. 외인주택과 보라색 건물 사이가 묘지 자리라고 해요. 거기 가면 수많은 이름 없는 무연고 묘들이 있는데, 산 중간 중간에 이름 없는 묘들이 다 미군 기지를 바라보고 못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요.”¹¹⁾

묘 앞에서는 미군기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그 뒤로 멀리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는 미군 공여지를 우선적으로 반환받아 2012년 착공, 2015년 완공했다. 발전소 규모는 광암동 마을 전체 크기와 맞먹는 규모로, 환경파괴와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당시 일각에서 제기되었지만 크게 공론화되지 못했다. 마을에 주민보상금으로 32억원이 지급되어, 마을기업인 세탁공장 ‘오렌지 라운드리’가 건립되었다.

10) 「[걱정·기회의 땅 미군부대]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 5천 원에 문힌 '순자'들」, 『중부일보』 2021. 3. 10.

11) 『땅과 기억: 동두천 덕거리마을과 공동체 아카이브』, 경기문화재단, 2018, 93쪽.

빼빼 마을



6.25 한국전쟁 후 1952년부터 캠프스탠리 미군부대 주변에 생계유지를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정착촌입니다. 의정부시 고산동 산116-1번지 일원으로, 전주이씨 신성군과 종종 소유 토지(32,715㎡)를 기반으로 생겨났습니다. 2013년 기준, 141가구 230명이 (의정부시 제4권 p102) 거주하고 있으며 100여 세대는 1980년도 이전에 건축되었고, 현재도 46동이 유흥 음식점, 상가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휴업한 상태입니다.

‘빼빼’이란 지명은 이 지역에 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것이라 합니다. 한편, 기지촌 여성들 사이에선 “한번 발을 들이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의정부시 지명 유래집’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이시언이 이끈 우관 전투 때 백병전을 하던 곳으로 변음되어 붙여진 이름이라 쓰여 있습니다.



기지촌, 지워지는 역사를 페미니즘적으로
균열내고, 기억하며 개입하기
간담회

기지촌을 여성주의적으로 기억하며, 활동하기

두레방 김은진

1. 문제 제기: 사라지는 공간, 지워지는 역사

우리는 지금 기지촌과 성매매 집결지가 빠르게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도시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이 공간들은 ‘낙후된 곳’, ‘정리되어야 할 문제 지역’,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없어져야 할 과거’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종종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이해한다. 의정부 빼빼마을도 마찬가지다.

2. 기지촌의 형성: 국가, 군사주의, 그리고 여성의 몸

기지촌은 우연히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냉전 체제와 군사주의, 특히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국제 정치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공간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조직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 기억은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여성 개인의 도덕성이나 ‘타락’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지우고, 여성들에게 낙인을 남기는 방식이었다.

기지촌을 여성주의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만든 권력 구조—국가, 군사주의, 자본—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다시 읽어내는 일이다.

3. 피해자 혹은 낙인, 그 사이에서 지워진 삶들

기지촌 여성들은 오랫동안 두 가지 극단적인 이미지 사이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타락한 여성’, 다른 하나는 ‘불쌍한 피해자’이다. 이 두 이미지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여성들을 ‘주체가 아닌 존재’로 만든다.

단순화된 기억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불쌍한 피해자’라는 서사는 동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현재에서 발언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 반대로 ‘문제적 여성’이라는 낙인은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았는가?

4. 성매매 산업의 해체와 ‘소거의 문법’

오늘날 우리는 성매매 산업의 해체를 이야기한다. 이는 분명 중요한 과제이며, 많은 여성주의 운동이 오랫동안 싸워온 영역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해체의 방식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억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집결지와 기지촌은 종종 재개발을 통해 사라진다. 이 과정은

‘환경 개선’, ‘도시 발전’, ‘안전한 사회’ 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리고 그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워지는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곳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역사,

국가와 사회가 가한 폭력,

그리고 우리가 저야 할 책임이 함께 사라진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시 속에서,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

5. 재개발과 자본: 또 다른 형태의 폭력

재개발은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논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이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기지촌과 성매매 집결지는 ‘저가의 땅’에서 ‘고가의 자산’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전환의 과정에서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종종 배제된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

6. 여성주의적 기억: 무엇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지촌을 여성주의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실천을 포함한다:

구조를 드러내기, 여성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기, 소거에 저항하기, 복잡성을 유지하기
이러한 기억은 불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외면해온 책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7. 동료들 만든다는 것: 질문을 함께 나누기

이 발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동료를 만드는 것’이다.

동료란 같은 생각을 이미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기지촌은 왜 ‘낙후된 공간’으로만 기억되는가?

그 공간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왜 여성들의 삶은 재개발의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가?

성매매 산업의 해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동료로 만날 수 있다.

8. 기억은 실천이다

기지촌을 여성주의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현재적인 실천이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는가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와 직결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기지촌을 ‘사라져야 할 과거’로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다른 형태로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간을 국가와 군사주의, 자본, 그리고 여성들의 삶이 교차한 역사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자 한다.

기지촌을 여성주의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라진 공간’을 다시 ‘기억되는 역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출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웹진 결

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 두레방은 결코 멈출 수 없다.

두레방 김은진

기지촌 여성들의 보금자리, ‘두레방(My Sister’s Place)’의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작 지점에 ‘문혜림’이라는 여성이 있다. 2022년 세상을 떠나 지금은 고인이 된 문혜림은 해리엇 페이 핀치백(Harriett Faye Pinchbeck)이라는 본명을 가진 미국인. 고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동환 목사의 부인인 그는 사회사업가로, 국적 덕분에 미국 우편 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려 민주화를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미군 부대에서 알코올, 약물 문제를 겪는 미군을 상담해주던 사회사업가 문혜림의 눈에 성매매를 하는 한국 여성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세상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이었다. 문혜림은 ‘나라도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장로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프로젝트를 통해 1986년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옆에 두레방을 세웠고 후에 고산동, 일명 ‘빼빼마을’에 동지를 틀었다. ‘빼빼’의 유래는 배나무가 많아 ‘배벌’로 불린데서 출발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우리말이 익숙지 않은 미군들의 발음 때문에 와전됐다거나 기지촌에 한 번 발을 들이면 좀체 빼기 어려워 나왔다는 설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두레방, 기지촌 여성들이 서로 돕고 쉬며 이야기하는 곳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는 공동체’라는 ‘두레’의 뜻을 연결해 ‘여성들이 서로 돕고 모여서 쉬며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탄생한 두레방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기지촌 여성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활동했다. 일상적으로는 상담, 한글과 영어 교육, 공동 식사, 요리교실, 야유회, 탈성매매를 위한 빵 만들기, 카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자립을 도왔다. 또 기지촌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매매 문제, 군사주의로 인한 피해와 실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한편 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 의료·법률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자활사업 연계, 출판·영상자료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또 낱알이 늘어나는 혼혈아들을 위한 놀이방, 공부방도 운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레방은 매우 정치군사적인 영역인 ‘기지촌’이라는 곳에서 여성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과 민관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 이는 2012년, 인권 침해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교육과 홍보 등을 목표로 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발족으로 이어졌다. 두레방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성매매를 조장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손해배상 소송, 특별법 제정, 국제연대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 피해 지원 상담소’로 지정받은 두레방은 2006년부터 ‘두레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2009년에는 ‘두레방쉼터’를 설립해 1990년대 중순부터 국내 기지촌으로 유입된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돕고 있고, 2021년에는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을 설립해 반성매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권 개선부터 조례 제정, 국가 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운동을 주도해온 두레방의 주요 성취들

지난 38년 동안 기지촌을 둘러싼 착취 구조와 인권 침해 상황을 인식한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을 바탕으로 한국 최초의 기지촌 미군 ‘위안부’ 운동을 주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의정부시 안에, 빼빼마을 안에서 여성들과 통과해온 시간이다. 수많은 상처를 딛고 사회와 화해(통합)하기, 홀로서기(자활), 자기 존중감 회복하기(치유 프로그램) 등은 여성들과 지금까지 살던 영역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해온 과정이었다.

법률 제정 등 사회적 성취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하다. 2004년 2월의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것을 비롯해 기지촌 여성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활동, 조례 제정 운동, 이주여성을 위한 E-6-2비자대안 네트워크 활동 등이다. 모두 여성들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사회와 거대한 군사화가 취약한 한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극복하는 연대활동이었다. 이를 위해 두레방은 성매매피해상담소(2006), 외국인여성지원시설(2009),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2021) 등을 등록, 운영하며 국가 예산을 받아 공식적으로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두레방은 의정부시 역사상 여성단체 최초로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였다.

2020년 4월 29일은 기지촌 여성운동에서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날이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날이기 때문이다. 두레방이 7년 동안 헌신한 성과였다. 2022년 9월 29일도 기념비적인 날로, ‘기지촌 성 산업 제도를 국가폭력으로 인정한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일은 두레방 기지촌 여성운동의 쾌거였다. 2014년 6월 25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 122명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여성들의 성매매를 방조, 묵인, 관리한 책임이 있기에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8년 3개월만의 일이었다.

‘기지촌 정화 운동’은 판결에서 정부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인용된 대표적인 증거였다. 1969년 주한 미군 감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던 기지촌 일대에는 인종 갈등, 성병 등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혼란이 극심했다. 그동안 여성들에게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다, 자궁심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 헌신하라’며 정책적으로 기지촌 성매매를 장려해온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자 불안한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는 출구로, 또 주한 미군의 주둔을 보장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통령 직속기구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만드는 등 ‘기지촌 정화 운동’을 추진했다. 핵심은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정화’였다. 당시 미군 측은 심각한 성병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후 클럽, 길거리 등을

불문하고 이른바 ‘토벌’ 이라고 불리는 불심검문이 이뤄졌고, 여성들이 무차별적으로 체포됐다. 이때 미군으로부터 성병이 있다고 지목당한 여성은 정당한 검사 절차 없이 바로 ‘몽키하우스’ 라고 불리는 성병관리소로 보내져 감금, 격리 치료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독한 치료제로 인해 고통받은 것은 물론 폐니실린 부작용으로 쇼크사하는 등 수많은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두레방은 또 19대, 20대, 21대 국회에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함께 했다. 하지만 법안이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그럼에도 두레방은 다음 국회에서도 ‘기지촌 여성 특별법’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속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낙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해 여성을 피해자로 위치시키고 미군 성매매가 범죄임을 명확히 한 점, 1980~1990년대 한국 상황에서 성산업은 성착취라는 사실을 공식화하고 반성매매 운동을 촉발시킨 부분 등 두레방이 이끌어낸 사회적 인식 변화도 꼭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철거 위기의 두레방과 원형 간직한 ‘옛 성병보건소’

이런 두레방은 최근 또 다른 커다란 시련과 과제에 직면했다. 첫째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여성이 떠나간 기지촌의 빈자리를 대체해온 ‘이주여성’ 문제다. 이들의 불안한 존재론적 특성은 여성의 빈곤화와 인신매매성 이주로 연결되면서 인종 차별, 계급 차별, 성 차별이라는 삼중의 인권 사각지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두레방은 이들 이주여성들을 위해 법률, 의료, 각종 노동 인권 침해 관련 지원과 상담, 나아가 보호 시설, 안정적인 숙식, 귀국 지원까지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당황스러운 문제는 두레방 이전이다. 1979년에 준공된 두레방 건물은 원래 기지촌 여성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검진받던 ‘옛 성병보건소’였다. 두레방은 의정부시 소유의 이 ‘아픔’의 공간을 2000년부터 임대해 평화교육의 장, 국제 인권 운동의 장, 기지촌 여성 운동의 장으로 탈바꿈시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두레방에게 시내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발단은 2022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다. 일명 ‘새뜰마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가 선정한 신규 사업 대상지 68개소 중에 의정부시의 현 뻘뻘마을이 포함돼 두레방 건물을 부수거나 고쳐서 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이름이라 별다른 설명 없이도 개발 방향이 읽힌다. 옛것은 미련없이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1월 11일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과장과 팀장이 두레방을 방문해 사무실 이전을 종용했다. 1월 22일에도 균형개발추진단 도시재생과 과장, 재생정비사업팀장 외 주무관 2인이 두레방을 찾았다. 이들은 ‘두레방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강해 사용할 계획이다. 건물을 활용해 뻘뻘마을 라이프 푸드 팝업스토어(쿠킹클래스-통닭만들기 등)를 진행하고, 등산객도 유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반복하는 논리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뻘뻘마을에는 미군

도, 여성들도 많지 않은데 두레방이 꼭 그곳에 있어야 하냐는 것이다. 이에 두레방은 고령의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빼빼마을에 단 한분이라도 살아계시는 한, 곁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를 담당해야 하는 단체라고 응답했다. 둘째는, 그럼 공간을 의정부 시내로 옮기란다. 하지만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가 시내로 가면 내담자들이 업주의 눈치를 보고 상담하러 올 수 없지 않겠는가. 더욱이 시내로 가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기지촌 여성들은 방문하기 어렵다. 셋째, 현 빼빼마을의 교통이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난 24년 동안 두레방은 아무 불편 없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 넷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고령의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일은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두레방의 정체성은 기지촌 여성 지원이다. 지원을 멈추는 것은 늙고, 연약하고, 외롭고, 병든 이들을 국가에서 또 외면하는 일이다. 경기도는 ‘기지촌여성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두레방은 그 조례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보조금은 의정부에서 받으면서 아웃리치는 동두천 등 타 도시로 많이 나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보조금 예산은 매칭펀드(여성가족부 50%, 경기도 25%, 의정부시 25%)이며, 어느 지역에 있든 요청하는 모든 내담자를 지원해야 한다. 동두천으로 특히 많이 가는 이유는 기지촌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두레방이다.

두레방이 ‘빼빼마을’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

빼빼마을이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로 거듭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두레방은 그 과정에서 약자의 역사가 무시되고 고스란히 삭제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전쟁 후 스스로 거름이 되어 도시 경제를 일으키고 가족과 나라를 먹여 살린 기지촌 여성들, 국가폭력에 희생된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지우려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정부는 그간 노년이 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속여왔다. 그런데 아파트는커녕 기지촌 여성들의 보금자리요, 사랑방이며, 최후의 공간인 두레방을 빼앗으려 한다! 언니들은 분노했다. 만나주지 않는 시장을 만나기 위해 시청 앞 거리로도 나섰다. 시장과 만남은 성사되었으나 결론적으로 “(2025년 6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지며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 현재까지 시장의 답변이다.

두레방은 빼빼마을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캠프 스탠리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빼빼마을은 아직도 기지촌이기 때문이다. 두레방은 ‘옛 성병보건소’ 건물을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장소를 치유와 회복의 장소로 변신시켰다. 두레방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상담소지만, 기지촌 여성들의 공동체이기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기지촌 현장인 빼빼마을과 두레방은 군사주의의 폐해와 여성 인권에 대해 교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미군기지과 기지촌과 여성들의 삶, 두레방의 역사가 응축돼 있는 ‘옛 성병보건소’ 건물은 아픈 역사를 후대에 알리고 교육하는데 더 없이 훌륭한 공간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그 자체로 근현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자 유일한 건물이기도 한 ‘의정부 옛 성병보건소’는 물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역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보존해야 한다. 1970~1980년대 기지촌 미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 한때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명명되기도 했던 이들은 기지촌 쪽방에서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외로움을 안고 만성질환, 빈곤과 싸우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제도가 젊어져야 마땅한 책임까지 개인의 잘못으로 몰

아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은폐된 성매매 공간인 기지촌에서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고쳐지지 않은 트라우마를 안고 지금껏 살아온 기지촌 여성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에서 추진하는 두레방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사안이 아니다. 기지촌 여성들의 보금자리, 최후의 공간을 빼앗는 인권의 문제이다.

기지촌 여성 공동체 의미 담은 ‘평화여성인권박물관’을!

지난 2024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예술가들과 ‘두레방×ㅁㅁㅁ보관소’ 연대로 ‘거품·소음·웅성거림’ 전시 프로젝트가 있었다.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이 스며있는 미술치료 결과물, 공예작품, 사진자료, 인터뷰 영상이 설치된 전시장이 바로 두레방 건물이었다. 그리고 ‘공존과 공생의 마을재생을 제안하다’ 포럼을 열어 두레방이 왜 빼빼마을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제안된 가장 현실적인 공간 활용 대안이 ‘기지촌여성박물관’ 혹은 ‘평화여성인권박물관’이었다.

우리 사회 여성 인권을 둘러싼 또 하나의 이야기의 집인 두레방은 지난 8월 ‘동두천 옛性病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역사적 가치를 기록하고 보존해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전시회 마지막날인 6월 5일 열린 ‘공존과 공생의 마을재생을 제안하다’ 포럼에서 발표한 이원재 문화연대위원장의 제언도 연결된 내용이었다.

“생태와 사람 그리고 시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도시재생은 있을 수 없다. 1년 유예가 아닌 60년의 성찰로 함께, 다양하게 숙의해야 한다. 두레방 공동체를 시민들이 함께 축적하고 의미화하는 커뮤니티아트센터 형태면 좋겠다.”

- 이원재 문화연대위원장

두레방은 여전히 기지촌 여성들의 공동체 공간이다. 이 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중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레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레방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9월 경기여성정책컨퍼런스 주제로 ‘두레방 이야기’가 확정됐다. 정기적인 포럼을 계속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기지촌 평화기행이나 다크투어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고, 나아가 세계와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두레방 공간은 부끄러운 장소, 감추어야 할 역사가 아니기에 결코 멈출 수 없으며 갑자기 ‘쫓겨’ 나서도 안 된다. 두레방의 정체성이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로 제한되어서도 안된다. 두레방 활동의 사회적, 역사적, 지역적 가치와 의미는 앞으로 더 다양하게 공유되고 해석돼야 한다. 두레방은, 두레방 언니들은, 두레방 활동가들은 마지막까지 빼빼마을에서 함께 할 것이다.

간담회 발제2.

(청량리를 겪은)이름이 만나고 있는 이태원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기용

■ 2014년 성적소수자 성매매에 관한 보고서(2014) 발간

‘성적 소수자이면서 성판매자인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무엇인지, 어떤 맥락과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했고 인터뷰와 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2015년부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은 이태원동에 존재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태원에 유흥업소가 있다고?’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이태원은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많은 곳,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 쿼어가 편견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성의 공간’,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힙한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은 이곳에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세미나 후기] 이태원, TG, 성매매. 2015.3.24 후기

그리하여 이름은 왜 트랜스젠더 언니들을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소수자 성매매에서 트랜스젠더 언니들을 인터뷰하면서 즐겁고 재미있었던 기억으로부터 그 서사를 더 듣고 싶다는 마음, 정보전달자/연계자/지원자로서 언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 TG 성매매에서 성매매와 성적 실천의 경계에 관해 고민해보고 싶은 마음 등등!!!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꺼내어보고 분명하게 해보는 (아니 더 혼란스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품이 많이 든다는 깨달음을 얻고, 앞서 그런 작업을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름의 맥락으로 끌어들여 소화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15. 5월 28일, 아웃리치날!

5월 28일, 아웃리치날!

(...)

한숨 돌리고, 이태원으로 출발~

작년에 소수자성매매를 하면서 트랜스젠더 성판매 여성을 만났던 것을 계기로 이태원 지역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만나고 싶단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자!”는 모드로 이태원에 도전했다. 실태조사 겸 미리 방문했을 때 만났던 언니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알고 보니 막달레나에서 낸 이태원 사랑방 관련한 책에 매우 강렬하게 등장하셨던 언니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막달레나도 처음에 이태원에 진출(?)했을 때 그 언니와 첫 개시(!)를 했다는데, 우리도 같은 언니로 개시를 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분명 좋은 징조야!” 라면서 좋아하기도 했다. 이태원의 특성상 청량리 유리방에 비해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지만, 몇몇 언니들과 얼굴을 트는 것을 위안 삼으며 다음 아웃리치를 기약했다.

우리가 갔을 땐 저녁시간이어서 트랜스젠더 클럽들은 대부분 닫혀있었다.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늦은 밤에 재방문을 했다. 언니들이 영업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대화는 쉽지 않았다. 그래도 이름의 정보가 적힌 봉투에 들어있는 콘돔과 젤, 그리고 별별신문을 두고 왔다.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어필할 수 있을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면 환영받을까,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하고 싶나, ‘상담소’와 ‘트랜스젠더 성판매 여성’과의 어떤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 등 여전히 고민되는 숙제들을 남겨두고, 늦은 시간 변화한 이태원을 뒤로 하고 헤어졌다.

2016년 아웃리치 보고서 중

“최근 재개발로 업소가 문을 닫는 한편 TG클럽들이 연달아 들어서는 등 이태원 상권의 변화가 보임”

■이태원,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으로 들어갔음.

-아웃리치 초반에 지원하는 여성을 가게에서는 절대 아는 척 하지 말 것. 주인과 동료가 알면 안 된다(그렇게 홍길동이 되어버린 이룸).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이제는 업주도 ‘나를 지원해달라’

-2015년 기준 업소 수 반잔바 29개, 젠더바 15개

■이태원 이전에 **청량리**가 있었죠.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청량리588) 2008년-2010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2016년부터 청량리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음.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밀려나야 하는 여성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공간에 대한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긴다? 그런 걸 할 여지 같은 건 전혀 없었음. 그냥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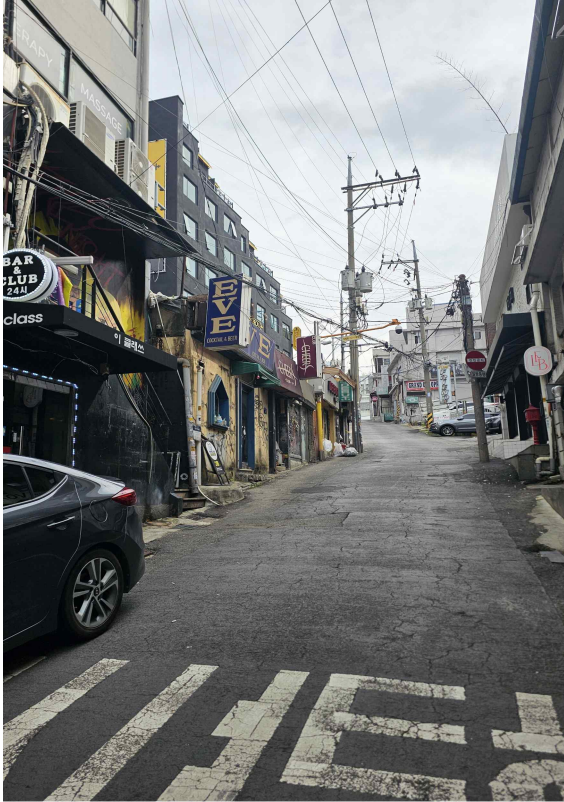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던 때에는 7:3, 6:4로 분배하다가 재개발로 서로 간의 이익 다툼이 일어나자 재개발 찬성 측은 ‘성매매는 불법입니다’를 가게들에 휘갈기고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업주는 여성들에게 갈세를 받기 시작. 단속을 위한 CCTV가 설치됨. 여성들은 영등포 등 다른 집결지로 옮기거나 하루하루 최대한 버티거나.



(2017년 3월)

■그래서 이태원은

2026년 현재 젠더바 21개, 반잔바 7개. 이태원 소방서 뒤편 언덕과 언덕 아래쪽 음식점 술집들 사이에 젠더바, 반잔바들이 콕콕 박혀있는 모양. 여성들 120명 추정(100/20)



-기지촌 업소들은 해마다 한 두개씩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젠더바가 채우고 있음. 점점 더 반잔바들은 사라지고 이러다 어느날 재개발로 싹 밀려나지 않을까.

[언니들]

- 다른 성산업 공간과 비교해서 이태원이 ‘자유’ 로웠다고 표현함. 돈도 많이 벌었고(그런데 그 돈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없고) 마음이 편한 곳.
- 재개발 때문에 계속 이사가는 중

[이름은]

- 2024년에는 이태원으로 아예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가서 집들이도 하고 언니들이랑 같이 밥 먹고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될거라 생각했는데..실패!
- 이태원 현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우리동네 이태원’. 하지만 여성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았다.
- 이태원 기록화 작업. 이름의 든든한 친구들과 이태원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음.

■이름의 고민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잘 기록할 수 있을까. 잘은 뭘까. 여성주의적으로 바라본다는건

뭘까. 대충 우리가 여성주의자니까...아닌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중.
-나이 들어가는 언니들(청량리도, 이태원도)과 어떻게 계속 관계 맺어야 할까.

<동두천 성병관리소 x 기지촌 빼빼 답사>
기지촌, 지워지는 역사를 페미니즘적으로
균열내고 기억하며 개입하기

답사 어떠셨나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x 역사문제연구소 x 두레방

